

한중일 3국 협력 20주년 기념

조 사 보 고 서



한중일 지방도시
트라이앵글 교류
2 0 1 9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서문

「한중일 지방도시 트라이앵글 교류 2019」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주로 양자 간에 체결되어 왔던 자매·우호도시 협정을 기반으로 한 한-중, 한-일, 중-일 간 3개의 ‘변’이 연결되어 한중일 간 트라이앵글(Triangle) 교류가 형성되었고, 이와 같은 교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4년 시작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매년 한중일 각국에서 선정된 3개 도시를 통해 1년간 다채로운 문화·청소년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들은 활동연도가 끝난 후에도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도시 간 트라이앵글 교류가 이미 20개 가까이 됩니다. 자매·우호도시와 함께 매년 3개의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새롭게 선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일 트라이앵글 교류는 앞으로도 착실하게 증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지방 교류를 주제로 한 자료와 연구는 주로 양자 간 혹은 참여도시/국가가 3개 이상인 다자 간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한중일 지방교류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한중일 교류사업에 힘써 온 지방정부 혹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도시들을 위한 선행사례와 방법론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고 한중일 지방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지방도시 및 관련기관/단체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초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조사보고서는 한중일 협력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분 좋은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협력에서 지방도시 간 교류로 시선을 돌리면, 1999년 역시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 3국의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의미있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일부에서는 이미 한중일 지방교류가 시작되어 3국 협력이 이러한 지방도시 간 교류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해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에서 순차적으로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합니다. 3국 협력은 비록 양자관계의 부침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 교류에서 얻은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지방교류 협력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지방교류의 현황과 사례가 공유됨으로써 이후 3국 간 한층 더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道上尚史(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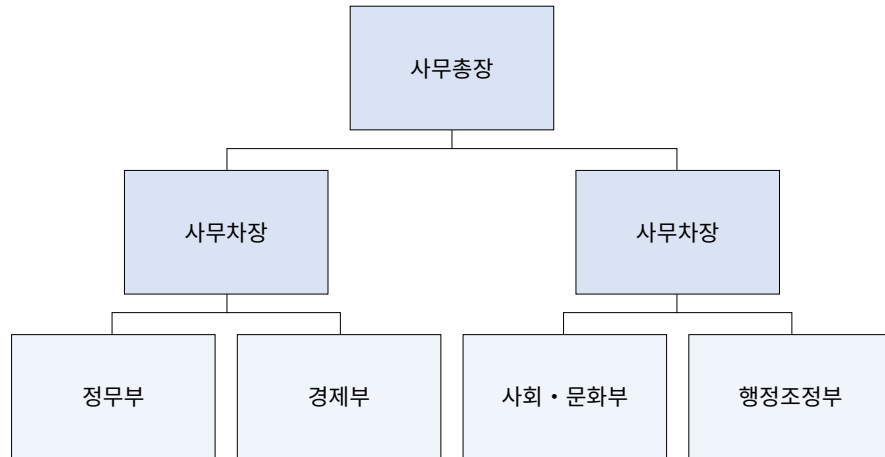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개요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일본국(이하 '일본')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각국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3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3국 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3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중일 협력이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요기능**
-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 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
 -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조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수행 및 출판

조직구조



협의이사회

협의이사회는 사무국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중일 각국이 2년마다 윤번제로 임명하는 1명의 사무총장(Secretary-General)과 2명의 사무차장(Deputy Secretary-General)으로 구성됩니다.

1대 협의이사회	2011.9 - 2013.8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한국 일본 중국	신봉길 마츠카와 루이(松川るい) 마오 닝(毛宁)
2대 협의이사회	2013.9 - 2015.8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일본 중국 한국	이와타니 시게오(岩谷滋雄) 천 평(陈峰) 이종헌
3대 협의이사회	2015.9 - 2017.8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중국 한국 일본	양 허우란(杨厚兰) 이종헌 우메자와 아키마(梅沢彰馬)
4대 협의이사회	2017.9 - 2019.8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한국 일본 중국	이종헌 야마모토 야스시(山本恭司) 한 메이(韩梅)
5대 협의이사회	2019.9 - 2021.8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일본 중국 한국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尚史) 차오 징(曹静) 강도호

부서

3국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Professional Staff)과 한중일 각국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된 일반인력(General Services Staff)으로 구성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정무부 외교 안보 역내이슈 국제이슈 재난방지·관리 싱크탱크 네트워크 공공외교 대외협력	경제부 무역·투자 교통·물류 세관 지적재산권(IPR)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과학기술 표준화 에너지 소비자정책 환경보호 농업 수자원 산림
사회·문화부 문화 청소년교류 언론교류 교육 보건복지 관광 지방정부 교류 인사행정 스포츠	행정조정부 기획·조정 인사 행정·법적지원 예산·회계 기록관리 온라인 홍보

1999.11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최초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필리핀 · 마닐라)
2008.12	아세안+3 정상회의라는 기존틀에서 탈피하여 제1차 한일중 별도 정상회의 개최 (일본 · 후쿠오카)
2009.10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시, 한중일 3국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 (중국 · 베이징)
2010.05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채택 (한국 · 제주)
2010.12	한중일 3국 정부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에 서명 (한국 · 서울)
2011.09	3국협력사무국 개소식 (한국 · 서울)
2012.05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중국 · 베이징)
2013.10	제16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브루나이 · 반다르세리베가완)
2014.11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미얀마 · 네피도)
2015.11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한국 · 서울)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2016.09	3국협력사무국 설립 5주년 기념 리셉션 (한국 · 서울) 제19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라오스 · 비엔티안)
2017.11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필리핀 · 마닐라)
2018.05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일본 · 도쿄)
2018.11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싱가포르)
2019.11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태국 · 방콕)

서문	1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개요	2
목차	5
편집자의 말	6
한중일 지방도시 트라이앵글 교류 개관	7
제1장 3개 도시 · 지역 간 교류	9
여수시(한) · 양저우시(중) · 가라쓰시(일)	10
강원도(한) · 지린성(중) · 돛토리현(일)	12
서울특별시(한) · 베이징시(중) · 도쿄도(일)	15
인천광역시(한) · 다롄시(중) · 기타큐슈시(일)	19
경기도(한) · 랴오닝성(중) · 가나가와현(일)	24
경상남도(한) · 산둥성(중) · 야마구치현(일)	27
전라북도(한) · 장쑤성(중) · 이시카와현(일)	30
창녕군(한) · 한중시(중) · 사도시(일)	32
군포시(한) · 린이시(중) · 아츠기시(일)	35
전주시(한) · 쑤저우시(중) · 가나자와시(일)	37
광주광역시(한) · 취안저우시(중) · 요코하마시(일)	39
서울특별시 중랑구(한) · 베이징시 동청구(중) · 도쿄도 메구로구(일)	44
청주시(한) · 칭다오시(중) · 니가타시(일)	48
제주특별자치도(한) · 닝보시(중) · 나라시(일)	51
부산광역시(한) · 상하이시(중) · 나가사키현(일)	56
강원도(한) · 허베이성(중) · 나가노현(일)	59
대구광역시(한) · 창사시(중) · 교토시(일)	61
부산광역시(한) · 하얼빈시(중) · 가나자와시(일)	64
제2장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메커니즘 및 행사	65
동아시아문화도시	66
한 · 중 · 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67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69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71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73
한일중 공무원 3국협력 워크숍	75

편집자의 말

- 이 조사보고서의 제목은 편의상 「한중일 지방도시 트라이앵글 교류」이지만, 실제로는 시(市)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道)’, 중국의 ‘성(省)’, 일본의 ‘현(縣)’ 및 ‘구(區)’ 차원의 교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의 여러 도시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기관과 3국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업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국명과 지명이 나열되는 순서는 출판언어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국어판의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판은 각국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는 해당 국가에서 대중에게 친숙한 순서를 따랐습니다. 단, 그림은 개별 사례에 따라 개최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지역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출판언어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서로 배열하였습니다. 또한, 제1장에서 교류도시들의 그룹을 배열할 때에는 3자 간 교류가 시작된 연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호칭에 대해서는 같은 교류도시 그룹 안에서도 나라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판에서 한중, 한일 양자 간 관계를 지칭할 경우 한국에서 사용되는 표기만을 기재했습니다. 중일 간 교류관계에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두 나라에서 다르게 쓰일 경우, 한국어판에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매·우호도시’로 표기하였습니다.
- 정보의 양과 교류사업의 규모 및 개수에 따라 각 교류도시 그룹별로 최대 5페이지까지 분량을 할애 하였습니다.
- 이 보고서의 조사범위는 한중일 3국 간 교류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한중일이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3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를 위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교류가 있었지만,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교류가 지속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실시될 행사에 관한 내용은 사전조사에 따른 것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매우 많은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보고서의 내용을 후속 교류사업에 한정하였습니다.
-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기반으로 민간단체나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관련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류 사례도 포함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나 공개된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례 중 일부가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은 한중일 지방교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이메일(tcs@tcs-asia.org)을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일 지방도시 트라이앵글 교류 개관

이 보고서에 소개된 18개의 교류도시 그룹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교류 배경

- ① 자매·우호도시·교류협력 협정 체결을 기반으로 한 교류: 13개 그룹
- ②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사업: 5개 그룹(2014~2018년)
→ 향후 매년 1개 그룹씩 증가 예정

2. 교류 분야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영역에 걸쳐있거나 하나의 교류도시 그룹이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 숫자는 교류도시 그룹 전체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경제나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사업보다 많다. 한편, 아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중일의 여러 도시 간 진행되는 교류 메커니즘과 행사는 경제 관련 3개, 일반교류 1개로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① 청소년 교류: 7개 그룹
- ② 문화 교류: 6개 그룹
- ③ 바둑: 3개 그룹
- ④ 경제 관련 교류: 2개 그룹
- ⑤ 스포츠 경기: 2개 그룹
- ⑥ 박물관: 2개 그룹
- ⑦ 도서관: 1개 그룹
- ⑧ 환경: 1개 그룹
- ⑨ 따오기 관련 교류: 1개 그룹

3. 교류 대상(연령별)

- ① 중학생: 1개 그룹
- ② 고등학생: 3개 그룹
- ③ 중고생 혼합: 1개 그룹
- ④ 대학(원)생: 3개 그룹
- ⑤ 성인: 14개 그룹
 - 문화인·운동선수 중심: 8개 그룹
 - 공무원 등 실무자 중심: 3개 그룹
 - 정부·민간 공동참여 (기업가, 전문가 등 포럼 참가): 3개 그룹

4. 참가 지방정부 규모

- ① 도(道)·성(省)·현(縣) 단위: 5개 그룹
- ② 시(市)·군(郡) 단위: 10개 그룹
- ③ ①과 ②의 혼합: 2개 그룹
- ④ 구(區) 단위: 1개 그룹

5. 교류 시작시기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는 주로 90년대 말 혹은 2015년 이후 시작된 경우가 많다. 최초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도 90년대 후반에 개최되었다. 2015년 이후 교류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매년 1개 그룹씩 증가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가 비교적 최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시가 현재까지 교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1994년 이전: 1개 그룹
- ② 1995년-1999년: 4개 그룹
- ③ 2000년-2004년: 2개 그룹
- ④ 2005년-2009년: 1개 그룹
- ⑤ 2010년-2014년: 3개 그룹
- ⑥ 2015년-2019년: 7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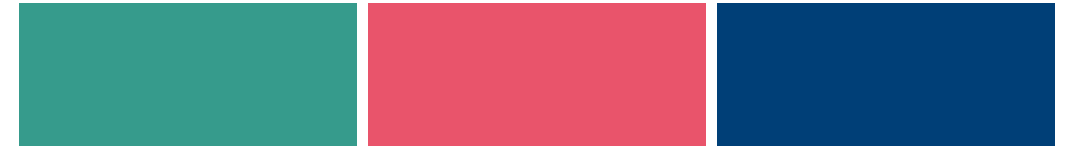
6 교류 장소: 한중일 3국 순환 개최/동일국가 연속 개최

한중일 3개 도시 혹은 지역 간 동등한 참여를 전제로 한 교류사업은 대부분 순환 개최로 운영되고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사업 제외). 현재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사업은 참여도시들이 매년 개별적으로 청소년 교류나 문화협력 사업을 개최하고 파트너 도시들이 이에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① 순환 개최: 11개 그룹
- ② 연속 개최: 8개 그룹
 - 동아시아문화도시: 5개 그룹
 - 기타: 3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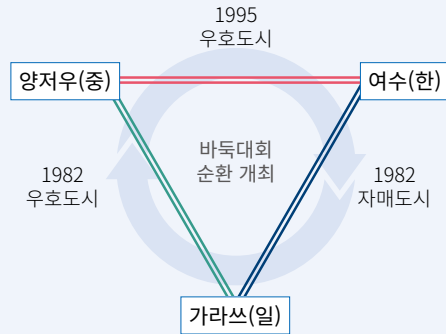
제1장

3개 도시·지역 간 교류



여수시(한) · 양저우시(중) · 가라쓰시(일)

26년간 교류 지속, 2018년 친선바둑대회는 20회째 맞아



전라남도 여수시,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揚州市),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唐津市) 3개 도시 간 교류는 여수시와 가라쓰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2월에 가라쓰시와 양저우시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93년부터 3개 도시 간 시장회의가 시작되어, 여수시와 양저우시가 1995년 우호결연 협정을 체결하면서 3자교류 구도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세 도시는 1999년부터 한중일 친선바둑대회를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지방교류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사례다.

한편 중국 양저우시는 한국 순천시, 일본 기타큐슈시와 함께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1999년~: 3개 도시 간 친선바둑대회

한중일 국제교류도시 친선바둑대회는 바둑경기를 통해 여수시, 양저우시, 가라쓰시 3개 도시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시작되었다. 매년 3개 도시가 순환 개최하며, 2018년 20회째를 맞이했다. 20년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개최되어 온 점이 주목된다.



제20회 친선바둑대회 기념 단체사진
(제공: 여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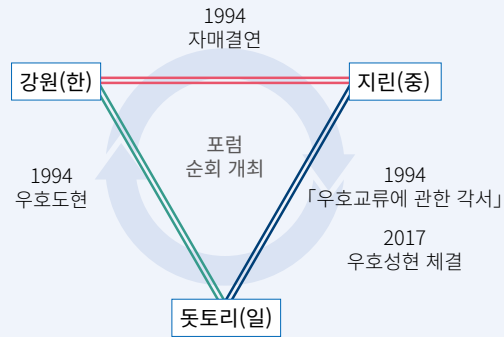
개최 실적

회차	개최일	개최도시(국가)
제1회	1999년 7월 5일(월)~11일(일)	양저우시(중)
제2회	2000년 5월 3일(수)~6일(토)	여수시(한)
제3회	2001년 6월 29일(금)~7월 2일(월)	가라쓰시(일)
제4회	2002년 11월 15일(금)~19일(화)	양저우시(중)
제5회	2003년 10월 16일(목)~20일(월)	여수시(한)
제6회	2004년 8월 6일(금)~8일(일)	가라쓰시(일)
제7회	2005년 6월 26일(일)~29일(수)	양저우시(중)
제8회	2006년 10월 25일(수)~28일(토)	여수시(한)
제9회	2007년 8월 28일(화)~31일(금)	가라쓰시(일)
제10회	2008년 10월 17일(금)~20일(월)	양저우시(중)
제11회	2009년 9월 17일(목)~19일(토)	여수시(한)
제12회	2010년 8월 23일(월)~26일(목)	가라쓰시(일)
제13회	2011년 10월 21일(금)~24일(월)	양저우시(중)
제14회	2012년 10월 18일(목)~20일(토)	여수시(한)
제15회	2013년 8월 29일(목)~31일(토)	가라쓰시(일)
제16회	2014년 10월 16일(목)~19일(일)	양저우시(중)
제17회	2015년 11월 29일(목)~31일(토)	여수시(한)
제18회	2016년 11월 11일(금)~13일(일)	가라쓰시(일)
제19회	2017년 11월 6일(월)~9일(목)	양저우시(중)
제20회	2018년 11월 15일(목)~17일(토)	여수시(한)
제21회	2019년 11월[예정]	가라쓰시(일)

(자료제공: 가라쓰시)

강원도(한) · 지린성(중) · 돛토리현(일)

주변지역과 더불어 활발한 도(道) · 성(省) · 현(縣) 간 경제 교류



강원도, 중국 지린성(吉林省), 일본 돛토리현(鳥取縣)은 동북아 경제권 구상을 바탕으로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과 함께 1990년대부터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 세 지방정부 간 교류는 강원도와 지린성이 1994년 6월 자매결연을 맺고, 지린성과 돛토리현이 1994년 9월 「우호교류에 관한 각서」(2017년 우호성현 체결)를 체결한 후, 강원도와 돛토리현이 1994년 11월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데서 출발한다.

이들 3개 지역 간 대표적인 정례행사는 2008년부터 순환 개최하고 있는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으로 최근에는 연례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방정부 주도 하에 다른 지역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 · 성장회의는 1994년,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포럼(EATOF)은 2000년부터 설립되어, 매년 회원국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다.

2008년: 「산업기술교류 협약」 체결,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시작

2006년 개최된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 · 성장회의에서 합의된 첨단산업 기술교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08년 강원도 경제산업국장, 지린성 과학기술청장, 돛토리현 상공노동부장이 「산업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세 지방정부는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을 순회 개최하고 있다.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	개최도시
1회	2008년	강원도 춘천시
2회	2011년	지린성 창춘시
3회	2012년	돛토리현 요나고시
4회	2013년 9월	강원도 춘천시
5회	2015년 9월	지린성 지린시
6회	2016년 9월	돛토리현 요나고시
7회	2017년 9월	강원군 평창군
8회	2018년 9월	지린성 창춘시
9회	2019년 10월	돛토리현 요나고시 [예정]



제8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사진제공: 지린성 과학기술청)

2009년 · 2014년: 우호교류 기념행사

2009년 지린성 창춘시는 강원도, 돛토리현, 시마네현과의 우호교류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월 한중일 국제문화 미식축제, 8월 한중일 청소년 친선탁구경기를 각각 개최하였다.

2014년에는 우호교류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양자간 기념행사와 더불어 한중일 3자 교류사업으로 8월 지린성에서 강원도, 돛토리현, 시마네현과 함께 한중일 우호교류 20주년 기념 청소년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 한중일 교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사진전이 돛토리현에서 개최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한중일 3개국 및 캐나다 앨버타주(강원도 우호도시 40주년 기념)를 포함하는 4개국 교류역사사진전 및 어린이미술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94년~: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 · 성장회의

강원도, 지린성, 돛토리현은 1994년 이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와 함께 매년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 · 성장회의를 순환개최해왔다. 이 회의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개최실적

	개최일	개최도시
22회	2017년 10월	돗토리현 구라요시
23회	2018년 10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24회	2019년 7월	몽골 튜브도

2000년~: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포럼(EATOF)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포럼(EATOF)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간 긴밀한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동아시아 관광의 세계화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원도의 주도 하에 2000년 창설되었다.

강원도, 지린성, 돗토리현을 비롯해 몽골 튜브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주, 필리핀 세부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베트남 광닌성, 캄보디아 씨엠립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등 10개국에서 10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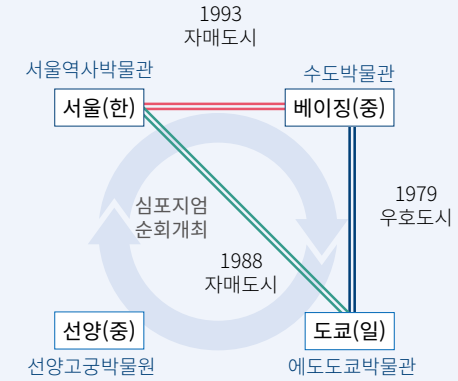
최근 개최실적

	개최일	개최도시
16회	2018년 8월	개최(돗토리현)

- 2019년을 'EATOF 글로벌 캠페인의 해'로 지정하고 동아시아 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회원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 이와 연계하여 2019년 2월 강원도에서 10개국 회원지방정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류 프로그램인 '글로벌 유스(Youth) 리더 고고(GoGo) 평창'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한) · 베이징시(중) · 도쿄도(일)

3국 수도 간 자매·우호관계를 기초로 한 박물관 협력, 중국 선양 포함 '사각' 교류로 확대



1979년 베이징(北京)-도쿄(東京), 1988년 서울-도쿄, 1993년 서울-베이징 간 각각 자매·우호 협정이 체결되었다. 1995년 3월 3개 수도의 수장들이 「베세토(BESETO)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하면서 '트라이앵글' 협력체제가 구축되었지만 지자체 간 협력보다는 주로 미술·연극제 등 민간 차원의 교류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은 박물관교류가 있다. 2002년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중·일 수도 박물관과 연계하여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 정례화 되었다. 그후 2006년 중국측 제안에 의해 선양(瀋陽) 고궁박물관이 참여하여 4개 박물관이 심포지엄을 순회개최하게 되었다. 10년 넘게 심포지엄을 통한 교류를 지속해 온 결과, 최근에는 서울, 베이징, 도쿄 중 2개국 박물관 간 전시교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물관을 통한 한중일 지방교류 사례는 아직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인천광역시(한)-다롄시(중)-기타큐슈시(일)' 순회전시 등이 있다.

2002년 10월: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서울에서 개최, 정례화에 합의

중일수교 40주년, 한중수교 10주년이자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년은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되었다. 이 해 10월 25일 제1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같은 해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에도도쿄박물관이,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수도박물관이 참가했다.

“21세기 박물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3국 수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은 3개 박물관의 관장과 학예원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했던 최초의 시도였다. 이 심포지엄은 원래 정례화를 염두에 둔 행사가 아니었지만 참석자들 간 교류의 의미와 이러한 소통이 지속될 필요성에 공감을 이루어냄에 따라 이듬해부터 순환제로 개최되었다.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사진제공: 서울역사박물관)

2006년 이전 개최 실적

개최년	개최도시	개최년	개최도시
2002년	서울	2005년	서울
2003년	베이징	2006년	베이징
2004년	도쿄		

2007년~: 선양고궁박물관 참가, 4관 교류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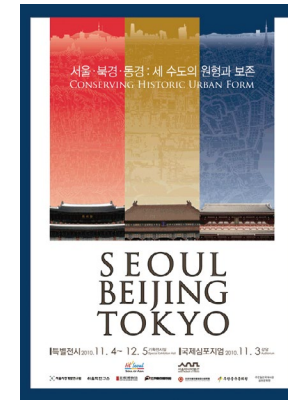
2007년 수도박물관의 제안에 따라 선양고궁박물관도 심포지엄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확대된 4관 교류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이후 개최 실적

개최년	개최도시	개최년	개최도시
2007	도쿄	2014	베이징
2008	선양	2015	도쿄
2009	서울	2016	선양
2010	베이징	2017	서울
2011	도쿄	2018	베이징
2012	선양	2019	도쿄(예정)
2013	서울		

2010년 11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최초의 한중일 특별기획전 개최

2010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북경·동경, 세 수도의 원형과 보존”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11월 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중일 세 수도의 도시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도시의 원형과 유산의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10 행사 포스터
(사진제공: 서울역사박물관)

2013년 · 2015년: 서울역사박물관 · 수도박물관 공동 기획전시

서울역사박물관과 베이징의 수도박물관이 공동주최하는 기획전시회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베이징 3000년, 수웅과 포용의 여정” 전시에 이어 2015년 수도박물관에서 “수로도시, 서울: 청계천의 변천” 전시가 개최되었다.

2017년 · 2018년: 수도박물관 · 에도도쿄박물관 공동 기획전시

베이징의 수도박물관과 에도도쿄박물관은 2002년부터 지속되어 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획 · 조사 · 연구와 교류전시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2017년 2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에도도쿄박물관에서 “에도와 베이징-18세기 도시와 생활”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이어 2018년 8월 14일부터 10월 7일에는 수도박물관에서 “도시 · 생활 - 18세기 도쿄와 베이징” 전시가 열렸다. 두 전시회는 18세기 베이징과 에도의 형성과정, 생활, 문화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방문객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쿄에서는 베이징 관련 자료를, 베이징에서는 도쿄 관련 자료를 더 많이 전시하도록 했다.

에도도쿄박물관의 홍보 자료에 의하면, 해당박물관의 소장품이 중국에서 전시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50일간 27만 8790명(하루 평균 5576명)이 전시회를 방문했으며, 많은 매체에 의해 소개되었다. 전시기간 중이었던 8월 15일 제17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수도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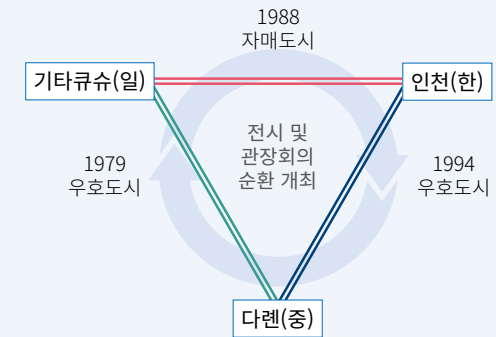
(위)도쿄 전시회, (아래)베이징 전시회
(사진제공: 에도도쿄박물관)

2019년: 서울 역사박물관 · 에도도쿄박물관 공동 기획전시

에도도쿄박물관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과 최초로 공동전시 ‘유만주의 한양’을 개최한다. 1755년 한양(현재의 서울)에 태어난 유만주는 20세가 되던 1775년부터 사망한 1788년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일기를 썼다. 유만주의 일기를 통해 18세기 후반 한양의 풍경과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전시는 앞서 2017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전시기간 동안 제18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한) · 다롄시(중) · 기타큐슈시(일)

항구도시 간 박물관 교류, 순회 전시로 착실하게 성과 쌓아 올려



한국 인천광역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大連市),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北九州市)는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도시간 교류는 다롄시와 기타큐슈시가 1979년 체결한 우호도시협정과 당시 인천직할시와 기타큐슈시가 1988년 체결한 자매결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기타큐슈시 및 시모노세키시와 자매·우호관계에 있던 한국과 중국의 4개 도시(한국-부산, 인천, 중국-다롄, 칭다오)로 구성된 ‘동아시아 도시회의’와 ‘동아시아경제인회의’(현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의 전신)가 발족했다. 이후 1994년 당시 인천직할시와 다롄시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중일 간 트라이앵글 자매·우호관계가 형성되었다.

세 도시는 현재 박물관 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생명의 여행 박물관)과 다롄시 뤼순 박물관은 2010년 11월 서명한 합의서에 따라 박물관 교류를 시작한 이후 매년 박물관장회의 및 사전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박물관장회의 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듬해부터는 순회 전시를 시작했다. 2015년 박물관장회의에서는 2기째가 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격년으로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를 주제로 한 순회 전시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중국 시안시,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와 함께 1년간 다채로운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타큐슈시는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또한 이 3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 중인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는 한중일 11개 도시가 참여하는 환황해지역 도시 간 경제교류를 위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 다롄시는 2016년 인천과 기타큐슈를 포함한 한중일 8개 우호도시들을 초청하여 탁구친선경기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3개 시립 박물관 교류 시작, 매년 실무자 회의 및 박물관장회의 순환 개최

제1회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관장회의는 2010년 8월 실무자 회의에서 준비조정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기타큐슈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관장들에 의해 체결된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 사업에 관한 합의서」가 박물관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3개 박물관은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실무자 회의와 박물관장회의를 순환 개최하고 있다.



2018년 제8회 박물관장회의
(사진제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개최 실적

개최년	개최도시	실무자 회의	관장회의
2010	기타큐슈	8월	11월(제1회) → 관장회의에서 「동아시아 우호 박물관 교류 사업에 관한 합의서」 서명
2011	인천	7월	10월(제2회)
2012	다렌	6월	
2013	기타큐슈	8월	12월(제3회)
2014	인천	7월	10월(제4회) → 2기째가 되는 「합의서」에 서명, 격년으로 순회전을 개최할 것에 합의
2015	다렌	7월	10월(제5회)
2016	기타큐슈	7월	11월(제6회)
2017	인천	6월	10월(제7회)
2018	다렌	4월	9월(제8회)
2019	기타큐슈	7월	10월(제9회) [예정]

2012년: 첫 번째 교류특별전 <다렌, 도시의 풍경> 개최

다렌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근대도시 다렌의 변화 모습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

개최일	개최기관
2012년 10월 9일 - 11월 4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2년 10월 26일 - 11월 25일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2013년: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동아시아 교류 코너’ 설치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은 2013년 3월 박물관 리모델링을 계기로 세 도시의 우호 박물관 교류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동아시아 교류’ 상설코너를 설치하였다. 이 상설 전시코너는 인천광역시와 다렌시의 역사와 문화, 전시활동 관련 사진자료, 문서, 복제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2013~2014년: 두 번째 교류특별전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 개최

공업도시 기타큐슈의 역사와 현재를 조감도, 탄광기록화(복제품), 사진자료, 회화 등에 담아 소개하였다.

개최일	개최기관
2013년 10월 15일 - 11월 10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4년 1월 21일 - 2월 16일	중국 뤄순 박물관

2013~2014년: 기타큐슈시의 시제(市制) 50주년 기념 <인천광역시립박물관·뤄순박물관 명품전> 개최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은 2013년 12월 21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기타큐슈시의 시제 50주년을 기념해 <인천광역시립박물관·뤄순박물관의 명품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다렌시 뤄순박물관에서 출품한 청동기, 회화, 도자기 등 유물들을 통해 기타큐슈 시민들에게 한중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4~2015년: 세 번째 교류특별전 ‘모던 인천書’ 순회전 개최

다양한 인쇄물의 삽화를 통해서 근대도시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전달되었는지, 또 그 이미지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전시

개최일	개최기관
2014년 12월 4일 - 2015년 1월 4일	뤼순 박물관
2014년 12월 6일 - 2015년 1월 12일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2016~2017년: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첫 번째 순회기획전 <기모노> 개최

2014년 제4회 박물관장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삼국의 의식주(衣食住)’를 공동의 테마로 한 순회전시를 격년으로 순환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첫 번째 순회기획전은 일본 전통의상 특별전으로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이 주최하였으며, 기타큐슈를 시작으로 뤼순, 인천에서 차례로 개최되었다.



뤼순 박물관 전시
(사진제공: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개최일	개최기관	전시주제
2016년 11월 12일 - 2월 11일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역사박물관	기모노가 말해주는 일본의 마음
2017년 1월 10일 - 2월 5일	뤼순 박물관	포의인생 - 일본 근대평민복식전
2017년 2월 14일 - 3월 19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모노가 말해주는 일본의 정서

2018~2019년: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두 번째 순회기획전 <위대한 도구, 젓가락>展 개최

젓가락 문화를 주제로 한 두 번째 기획전은 뤼순 박물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각 박물관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인천 전시
(사진제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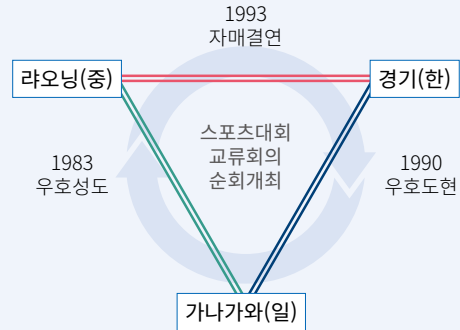
개최일	개최기관	전시주제
2018년 5월 18일 - 9월 20일	뤼순 박물관	
2018년 10월 20일 - 12월 9일	기타큐슈 시립 자연사 · 역사박물관	젓가락과 생활 - 한중일 젓가락문화전>을 <식(食) 여행-젓가락과 일식의 문화사> 전시 일환으로 개최
2019년 1월 22일 - 2월 24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위대한 도구, 젓가락> 전

2020~2021년: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 세 번째 순회기획전 <그녀들의 공간, 안채> 개최 예정

주거문화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순회기획전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주최로 2020년 개최 예정

경기도(한) · 랴오닝성(중) · 가나가와현(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우호교류회의를 중심으로 23년간 교류 지속



경기도,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가나가와현이 1983년 5월 랴오닝성과 우호현성, 1990년 4월 경기도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랴오닝성이 1993년 10월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3자협력 구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6년 3지역 우호교류회의가 시작되어 정기적으로 공동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교류 촉진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학술포럼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청소년 스포츠 교류사업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참가자수(매년 약 150명)와 경기종목(3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다른 3국 교류도시 그룹들과 비교할 때,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의 교류는 가장 역사가 긴 편에 속하며, 교류사업의 질과 규모 면에서도 가장 발달된 형태로 볼 수 있다.

1996년~: 3지역 우호교류회의

이들 세 지역은 1996년 이후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교류 등을 포함한 교류사업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후 소개될 스포츠 교류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초기 지자체 단체장이 참여하던 것에서 간부 참여로 바뀌어 참가 대표단의 직급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개최 실적

회차	개최일	개최지	회차	개최일	개최지
제1회	1996년 8월	랴오닝성	제7회	2008년 10월	랴오닝성
제2회	1998년 9월	경기도	제8회	2010년 10월	경기도
제3회	2000년 9월	가나가와현	제9회	2013년 3월	가나가와현
제4회	2002년 10월	랴오닝성	제10회	2014년 8월	랴오닝성
제5회	2004년 10월	경기도	제11회	2017년 11월	경기도
제6회	2006년 11월	가나가와현	제12회	2019년 5월	가나가와현



제12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 기념사진
(사진제공: 가나가와현)

2004년~: 3도성현 청소년 우호 스포츠 교류대회

세 지역은 2002년 개최된 제4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스포츠 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남자 축구 1개 종목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여자 농구, 2014년부터는 남녀 탁구도 추가하여 참가자수와 경기종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나가와현 실행위원회에서 발간한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 고교생 참가자들의 소감을 소개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바디랭귀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중국과 한국 선수들은 매우 다정했으며 그들의 나라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모두 같은 고교생이며, 스포츠에 국경이나 언어의 장벽은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제14회 한중일 3도성현 청소년 우호 스포츠 교류대회 폐막식
(사진제공: 랴오닝성)

개최 실적(출처: 가나가와현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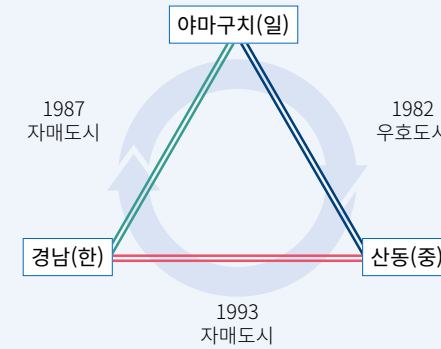
년도	일자	개최지	참가자	프로그램
2004년	8월 23~27일	경기도	경기도 선수단 20명, 라오닝성 선수단 21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24명	축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05년	8월 25~29일	랴오닝성	경기도 선수단 25명, 라오닝성 선수단 23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24명	축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06년	8월 23~27일	가나가와현	경기도 선수단 24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27명	축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07년	8월 24~28일	경기도	경기도 선수단 35명, 라오닝성 선수단 42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42명,	축구(남)·농구(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08년	8월 25~29일	랴오닝성	경기도 선수단 35명, 라오닝성 선수단 45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42명	축구(남)·농구(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09년	8월 24~28일	가나가와현	경기도 선수단 38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39명	축구(남)·농구(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10년	8월 23~27일	경기도	경기도 선수단 39명, 라오닝성 선수단 33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42명	축구(남)·농구(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11년	8월 22~26일	랴오닝성	경기도 선수단 39명, 라오닝성 선수단 37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40명	축구(남)·농구(여)친선경기, 교류행사 등
2012년	8월 27~31일	가나가와현	경기도 선수단 39명, 라오닝성 선수단 19명 (여자 농구), 가나가와현 선수단 37명	축구(남)·농구(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13년	8월 26~30일	경기도	경기도 선수단 49명, 라오닝성 선수단 15명 (여자 농구), 가나가와현 선수단 41명	축구(남)·농구(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14년	8월 26~30일	랴오닝성	경기도 선수단 45명(남자 축구·여자 농구), 라오닝성 선수단 48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47명	축구(남)·농구(여)·탁구(남·여) 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15년	8월 24~28일	가나가와현	경기도 선수단 54명, 라오닝성 선수단 51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46명	축구(남)·농구(여)·탁구(남·여) 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16년	8월 22~26일	경기도	경기도 선수단 50명, 라오닝성 선수단 47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50명	축구(남)·농구(여)·탁구(남·여) 친선경기, 교류행사 등
2018년	8월 20~24일	랴오닝성	경기도 선수단 51명, 라오닝성 선수단 53명, 가나가와현 선수단 49명	축구(남)·농구(여)·탁구(남·여) 친선경기, 교류행사 등
2019년	8월 19~22일	가나가와현	랴오닝성 선수단 10명(남녀 탁구), 가나가와현 선수단 45명	탁구(남·여)친선경기, 학교방문, 교류행사 등

2004~2008년: 전문가 학술포럼

경기도, 중국 랴오닝성, 일본 가나가와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새로운 교류협력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경상남도(한) · 산둥성(중) · 야마구치현(일)

1997년 이후 문화·청소년교류 분야 중심으로 교류 지속



경상남도, 중국 산둥성(山東省),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은 본국과 이웃나라를 잇는 “바다의 현관”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3자 교류를 시작하기 전에는 산둥성과 야마구치현이 1982년 8월 우호협정을, 경상남도와 야마구치현이 1987년 6월 자매결연을, 경상남도와 산둥성이 1993년 9월 자매·우호도시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1997년 산둥성-야마구치현 우호협정 15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10주년을 계기로 3자 간 보다 포괄적인 지역협력과 정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교류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문화·청소년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학 간 교류도 활발하다. 야마구치현립대학은 산둥성과 경상남도 소속 2개 대학과 1997년부터 한중일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매년 여름 이들 대학에서 학생들을 초청하여 3주간의 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산둥성, 야마구치현 간 협력사업은 산둥성-야마구치현 우호협정 15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10주년을 계기로 보다 포괄적인 지역협력과 정책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문화·청소년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개최 실적

개최일	개최도시	이벤트
1997년 11월	야마구치현	동아시아 문화의 모임 제1회 국제문화 심포지엄
1998년 2월	야마구치현	국제환경 심포지엄
1999년 11월	산동성	제2회 국제문화 심포지엄
2001년 10월	경상남도	제3회 국제문화 심포지엄
2007년 10월	야마구치현	산동성-야마구치현 우호협정 25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사업 → 경상남도 · 산동성 · 야마구치현 트라이앵글 포럼 <국제교류 · 국제관광 · 자연환경> (야마구치현 개최) → 3개 지역 고교생 스포츠교류(야마구치현 개최)
2012년 7월	야마구치현	산동성-야마구치현 30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
2014년 8월	산동성	청소년 친선탁구대회
2017년 8월	야마구치현	산동성-야마구치현 우호협정 35주년, 경상남도-야마구치현 자매결연 30주년 사업 → 청소년 다문화전통예능 축제
2018년 8월	산동성	서화예술교류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 꽃박람회 공연행사
2019년 11월	경상남도	마산국화축제 한중일 전통무예공연



일본 야마구치현립대학 각 학부 · 학과와의 교류모습
(사진제공: 야마구치현립대학)



2017년 청년 다문화전통예능 축제
(사진제공: 야마구치현)



2018년 서화예술교류전
(사진제공: 산동성)

1997년~: 야마구치현립대학, 산동성 및 경상남도 대학과 교류 사업 지속

야마구치현립대학은 경상남도 소속 경남대학교, 산동성 소속 취푸사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2000년부터 이들 대학 학생들이 매년 여름마다 현립대학을 방문하도록 하는 글로벌 학생 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되었던 ‘3개 대학 트라이앵글 교류사업’을 발전시킨 것이다.

‘글로벌 학생 교류사업’은 매년 6월 말에서 7월까지 약 3주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캠퍼스 상호교류 증진과 소속 학생,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 학생들은 일본어 수업, 홈스테이, 일본문화 체험, 전공교류, 학생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19년 프로그램은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야마구치현립대학 학생들 또한 취푸사범대학과 경남대학교의 단기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취푸사범대학의 프로그램은 야마구치현립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경남대학교는 중국과 일본 이외의 타 제휴대학 학생들에게도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다.

전라북도(한) · 장쑤성(중) · 이시카와현(일)

환경 분야 3자 협력사업 지속

전라북도, 중국 장쑤성(江蘇省),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縣)은 환경 분야 실무자간 교류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 간 교류는 1994년 10월 전라북도와 장쑤성이 우호교류를 맺고, 장쑤성과 이시카와현이 1995년 11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 2001년 9월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이 「우호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면 부터 시작되었다.

3개 지역 간 정례사업으로는 ‘환경 협력 트라이앵글 사업’이 있다.

2004년~: 환경보전 분야 교류 사업

3개 지역은 각국 공동의 중요과제인 환경문제에 관해 상호협력과 인식공유를 위해 환경보전 분야 담당자 간 검토회를 순환개최하고 있다. 2018년까지 3개 지역에서 10차례 개최되었다.

‘환경 협력 트라이앵글 사업’ 최근 사례

○ 일시

2018년 10월 29일(월) - 11월 1일(목)

○ 내용

의견 교환(주제: “거주지 인근 산촌의 이용 및 보전”), 시설 견학(이시카와 동물원, 가나자와시 서부환경에너지센터 등)

○ 참가자

한중일 환경보전 분야 실무자(한·중 담당자는 각 3명 출석)



2018년 한일중 환경보전 기술 검토회
(사진제공: 이시카와현)

개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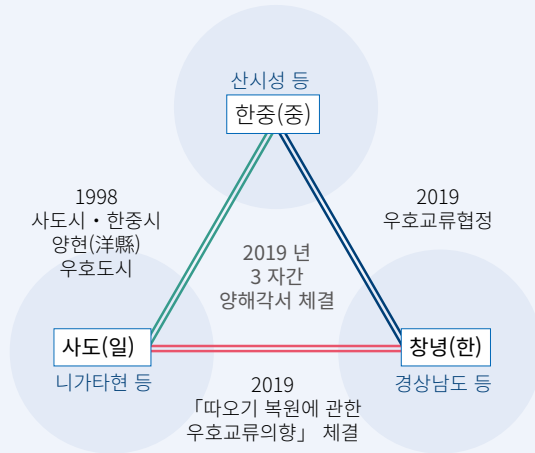
년도	개최지	주제
2003년	이시카와현	환경교육 추진
2004년	이시카와현	기업 및 행정기관의 환경배려와 환경교육
2005년	이시카와현	순환형 사회의 추진에 대해
2006년	장쑤성	수질 보전 대책
2007년	전라북도	지구 온난화 대책
2008년	이시카와현	지구 온난화 대책
2009년	장쑤성	생물다양성 보전
2013년*	이시카와현	지구 온난화 대책
2014년*	전라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2015년*	이시카와현	자원순환정책
2016년	장쑤성	고체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2017년	전라북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8년	이시카와현	거주지 인근 산촌의 이용 및 보전

*한·일 2개 지역만 참석

출처: 이시카와현청. 상기 연도는 일본의 회계연도(4월 1일 - 3월 31일)를 따름

창녕군(한) · 한중시(중) · 사도시(일)

따오기를 통한 3시·군 협력, 교류 본격화를 위해 양해각서 체결



경상남도 창녕군, 중국 산시성 한중시(漢中市),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佐渡市)는 한중일의 따오기 서식지로서 도·성·현급 교류를 포함하여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따오기는 원래 한중일 등지에서 널리 서식하고 있었지만, 남획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다. 한국에서는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목격된 것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2003년 일본산 따오기가 멸종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따오기가 1981년 발견되어 증식에 성공했다. 1999년 중국이 국가 간 우호의 상징으로서 일본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였고, 2008년에는 한국에도 기증하였다. 한·일 양국은 이후 각각 따오기 증식에 성공했다.

2012년 이후 이들 3개 지역은 따오기 야생복귀와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3국 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해 왔다. 2019년 7월 개최된 따오기 국제포럼에서는 3개 시·군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따오기 관련 트라이앵글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2019년 7월 양해각서 체결식. 왼쪽부터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한국 창녕군수, 중국 한중시 부시장, 일본 사도시장 (사진제공: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1999년 · 2008년: 중국에서 한·일에 따오기 기증

일본은 1985년부터 중국에서 따오기를 대여하여 일본산 따오기와의 교배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8년 11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일본 국민방문 시 천황에게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할 계획을 밝혔고, 1999년 1월 사도시에 기증되어 증식에 성공했다. 한국은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이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기로 하면서 같은 해 11월 한국 창녕군에 기증되어 증식에 성공했다.

2012년~: 따오기 복원 · 증식을 위한 한중일 정보 공유

따오기 복원 · 증식 사업에 종사하는 한중일 관계자들은 3국 간 국제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따오기 보호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회의는 2014년 11월 중국, 2016년 12월 일본, 2019년 5월 한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18년: 중국에서 따오기국제포럼 개최, 따오기를 통한 협력 다변화

2018년 5월 한중시 양현에서 따오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중일 관계자 등이 모여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따오기 국제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3국 간 협력이 따오기 보호에만 머물지 않고, 따오기를 매개로 한 산업, 관광, 문화 등 보다 폭넓은 영역으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019년 5월: 3국 귀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최초 따오기 야생 방사에 성공

2019년 5월 22일, 한국의 유일한 따오기 서식지인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오랜 염원이었던 야생방사가 실현되었다. 방사식에는 중국과 일본의 귀빈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창녕군수와 사도시 부시장은 「따오기 복원에 관한 우호교류의향」을 체결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창녕군에서 ‘따오기 야생복귀 및 서식지 관리를 위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19년 7월: 서울에서 한중일 포럼 개최, 3시·군 양해각서 체결

2019년 7월 11일 서울에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주최, 중국 따오기국제포럼사무국 공동주최, 한국 외교부 후원으로 ‘따오기 국제포럼 2019 in 서울’이 개최되었다. 2019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따오기 야생방사에 성공한 해이자 1999년 최초의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소재하는 한국 서울에서 해당 포럼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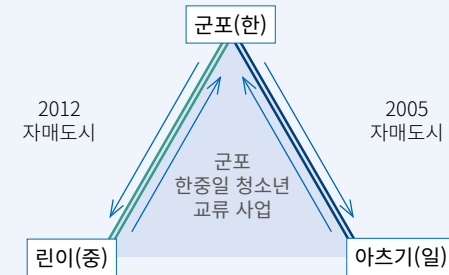
포럼 당일에는 한정우 창녕군수, 장젠귀 한중시 부시장, 미우라 모토히로 사도시장, 그리고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이종헌 사무총장 4자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이후 따오기 관련 행사와 따오기를 매개로 한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포럼의 각 세션에서는 따오기를 통한 지방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포럼기간 중 한중일 따오기 서식지에서 온 3국 어린이들의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포럼 오후 세션에 앞서 한중일 어린이들의 합동공연이 열렸다.



2019 서울 따오기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따오기 동요를 합창 중인 한중일 어린이 공연단
(사진제공: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군포시(한) · 린이시(중) · 아츠기시(일)

군포시 중심으로 2010년부터 한중일 간 청소년교류 사업 운영



경기도 군포시는 2010년부터 중국 산둥성 린이시(臨沂市), 일본 가나가와현 아츠기시(厚木市)와 청소년 교류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교류를 시작할 당시 군포시는 아츠기시와 자매결연(2005년 체결), 린이시와는 2008년부터 우호교류 관계(2012년 자매결연)에 있었다.

군포시는 매년 린이시와 아츠기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파견 · 초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군포시에서 상대 도시로 파견할 경우에는 양자 간 교류로 진행되지만, 군포시로 초청할 경우 중 · 일 두 도시에서 온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통해서 한중일 간 3자 청소년교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한중일 3개 도시 간 자매 · 우호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3자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010년~: 군포시 주최로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개최

2010년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군포시는 군포시 · 린이시 · 아츠기시 3개 도시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 1회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첫 회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군포 학생 자택에서 중 · 일 파트너 학생 홈스테이(3박), ▲전체합숙(1박), ▲군포시장 등과의 만남, ▲문화체험 및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시는 중국어와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중고생을 개별모집하여 페스티벌 종료 후 린이시(8월) 또는 아츠기시(다음해 1월)에 단기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있다.

최근 개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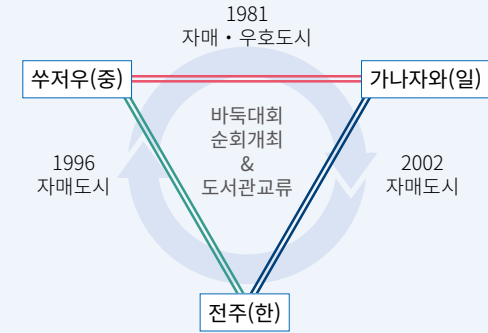
년도	상세 정보
2017년 7월	한 · 중 · 일 참여
2018년 7월	한 · 중 · 일 참여
2019년 7월	한 · 일만 참여



2018 군포국제청소년페스티벌 단체 기념사진
(제공: 군포시청)

전주시(한) · 쑤저우시(중) · 가나자와시(일)

바둑 · 도서관을 통한 트라이앵글 교류



전라북도 전주시,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蘇州市),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金沢市)는 2010년부터 바둑 교류를, 2015년 이후에는 도서관 교류를 시작했다.

이들 3개 도시 간 교류는 쑤저우시와 가나자와시가 1981년 우호도시 협정을, 1996년 전주시와 쑤저우시가 자매결연을, 2002년 전주시와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자매 · 우호도시 관계를 바탕으로, 전주시립도서관, 쑤저우도서관,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2013년부터 15년에 걸쳐 양자 간 교류협약서를 각각 체결함으로써 한중일 3개국 도서관 트라이앵글 교류로 확대되었다.

한편, 가나자와시는 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부산광역시, 중국 하얼빈시와 함께 1년 동안 다채로운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주시, 쑤저우시, 가나자와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지정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주시는 ‘미식’, 쑤저우시와 가나자와시는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에서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2010년~: 쑤저우에서 바둑교류 시작, 4회차부터는 격년 개최

바둑교류는 2009년 가나자와시에서 제안하고, 2010년 쑤저우시에서 제1회를 개최한 후 순환제로 열리고 있다. 제1회부터 제3회까지는 매년 운영되다가, 제4회차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게 되었다. 가나자와시에서는 민간단체(가나자와국제바둑협회)가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며, 전주시와 쑤저우시는 시정부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개최 실적

회차	년도	개최지	회차	년도	개최지
제1회	2010년	쑤저우	제4회	2014년	쑤저우
제2회	2011년	가나자와	제5회	2016년	가나자와
제3회	2012년	전주	제6회	2018년	전주

2013년~: 3개시 도서관 교류협약서(MOU) 체결, 도서관 교류 개시

중국 쑤저우 도서관과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양 도시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교류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4년 9월에는 전주시립도서관과 쑤저우 도서관이, 2015년 10월에는 전주시립도서관과 우미미라이 도서관이 각각 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3개국 도서관 트라이앵글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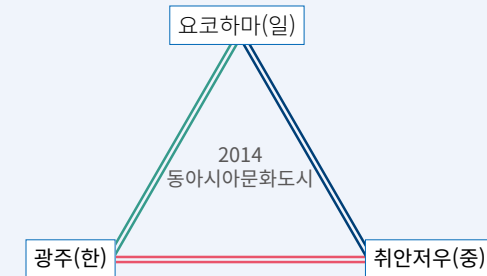
이후 3국 도서관 간 주된 교류 사업은 아래와 같다.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 교류협력 사례

(1) 2016년 10월 6~25일	전주시립도서관, 쑤저우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시와 쑤저우시를 소개하는 문화소개 전시사업 실시. 전시 기간 동안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한중일 이야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 독서장려 방법」 기획전을 실시하였다.
(2) 2018년 10월 11~30일	전주시립도서관, 쑤저우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나자와·자매도시 도서관 교류의 발자취」 기획전을 실시. 전주시와 쑤저우시의 개요, 문화·전통공예, 도서관,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사업’ 등 관련 내용을 패널, 공예품, 도서 등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소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동화책과 음악으로 잇는 세 도시들의 이야기-가나자와·쑤저우·전주」를 주제로 한 동화책 만들기 워크숍과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광주광역시(한) · 취안저우시(중) · 요코하마시(일)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이후 활발한 교류 지속



광주광역시, 중국의 푸젠성 취안저우시(泉州), 일본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横浜市)는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1년 동안 다양한 교류 사업을 실시했다. 같은 해 11월, 세 도시의 시장들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초대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3개 도시가 1년간 함께 구축해 온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 교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교류 및 우호 촉진
2. 문화·예술단체, 기업, 시민 등 민간교류 활성화 노력
3. 동아시아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4. 3개 도시의 대표와 관계 부서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협력업무,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

3개 도시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2015년 이후에도 활발하게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각 도시에서 1년에 1회 다른 2개 도시에서 대표단을 초청하여 문화·청소년 교류 사업을 주로 실시한다. 주로 큰 규모의 문화행사에 파트너 도시의 공연단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11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교류 지속에 합의

2014년 시작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초대 문화도시로서 광주광역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는 함께 1년간 활발하게 문화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3개 도시는 같은 해 11월 개최된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요코하마시 폐막식’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교류협력을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취안저우시 부시장, 요코하마 시장, 광주광역시장
(사진제공: 요코하마시)

2015년 주요 교류 활동

○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8월 '요코하마 댄스 퍼레이드'에 광주, 취안저우 무용단 참가
광주	10월 '추억의 7080총장축제'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공연팀 참가
취안저우	11월 제14회 '아시아 예술축제'에 광주,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11월 광주광역시와 한국 국제여성미술교류협회의 제안으로 일본 요코하마뱅크아트 (BankART Studio NYK, 요코하마시의 '창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됨)를 소개하는 국제여성미술제를 개최
광주	11~12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요코하마뱅크아트 1929의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

2016년 주요 교류 활동

○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6월 '광주 ACC프린지페스티벌'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요코하마	9월 '2016 요코하마 소리축제'에 광주, 취안저우 예술단 참가, 학교 방문
취안저우	10월 '해상실크로드 국제 예술축제'에 광주,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2016 요코하마 소리축제에서 공연 중인 광주 예술단
(사진제공: 요코하마시)

○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광주	'고가네초(黄金町)×광주AIR교환 프로그램2016', 광주와 요코하마 간 예술가 상호 파견 프로그램 실시
광주	7월 '동아시아문화도시 건축포럼'에 요코하마시 참가

2017년 주요 교류 활동

○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6월 '광주 ACC프린지페스티벌'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요코하마	8월 3개 도시 간 청소년문화교류를 실시, 각 도시 고등학생이 요코하마에 모여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17'을 견학하고 일본문화 체험 등 교류활동 진행
취안저우	12월 '제3회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축제'에 광주,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11월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포럼'에 취안저우, 요코하마를 비롯한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



취안저우 행사에 참가한 요코하마 공연단
(사진제공: 요코하마시)

2018년 주요 교류 활동

○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7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개최된 ‘대국민 한마당 축제’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예술단 참가
요코하마	9월 ‘댄스, 댄스, 댄스 @요코하마 2018’ 등 행사에 광주, 취안저우 예술단 참가 및 현지 학교방문
취안저우	11월 ‘한·중·일 미술교류전’ 개최. 전시기간 중 광주와 요코하마에서 파견된 아티스트가 현지에서 작품 제작활동 진행



요코하마 행사에 참여한 취안저우 공연단
(사진제공: 요코하마시)

○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광주	1~3월 ‘광주×고가네초 AIR교환 프로그램 2017’, 광주와 요코하마 간 예술가 상호 파견 프로그램 실시. 2018 프로그램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제목에 사용된 연도는 일본의 예산연도를 따름)
취안저우	2~3월 ‘취안저우×고가네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 프로그램’, 취안저우 해외 교통사박물관에서 요코하마 노랑·히노데초 지구 ‘아트에 의한 지역개발’ 관련 자료전시 및 토크쇼 등 개최
광주	9월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언론포럼’에 요코하마, 취안저우를 비롯한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언론인들이 참가

○ 주요사업

개최지	상세 정보
광주	7월 13~14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축하공연에 취안저우, 요코하마, 제주(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단 참가
요코하마	9월 말 ‘요코하마 소리축제 2019’에 취안저우, 광주, 제주 예술단 참가
취안저우	11월 말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축제」에 광주, 제주, 요코하마 등 예술단 참가(예정)

○ 기타

개최지	상세 정보
요코하마	1월 19~26일 ‘취안저우×고가네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 프로그램 2018’에 취안저우에서 아티스트 파견 및 자료전시
요코하마·광주	7~9월 ‘광주×고가네초 AIR 교환 프로그램 2019’에서 광주와 요코하마 간 예술가 상호 파견 프로그램 실시
광주	10월 18일 ‘2019 아시아 문화포럼’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특별세션 개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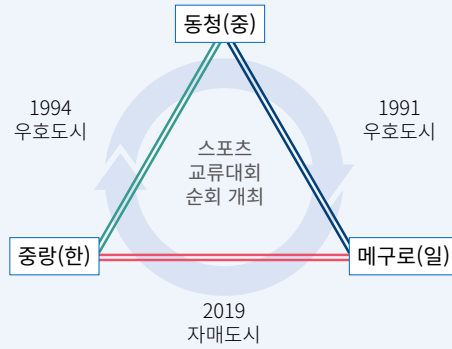
2019년 주요 교류 활동



광주 행사에 참가한 취안저우, 요코하마 공연단
(사진제공: (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서울특별시 중랑구(한) · 베이징시 동청구(중) · 도쿄도 메구로구(일)

전례 없는 구(區) 간 트라이앵글 교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국 베이징시 동청구(東城區),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目黒區) 3개 구는 2017년부터 스포츠교류 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구(區) 간 트라이앵글 교류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의 교류는 중랑구와 메구로구가 90년대 각각 베이징시 동청구와 자매·우호도시관계를 맺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2010년 중랑구와 메구로구가 교류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재 3개 구가 운영 중인 중학생 스포츠 교류는 2015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며 바로 이듬해 합의를 거쳐 2017년부터 실시되었다. 그 후, 중랑구와 메구로구의 자매결연을 위한 협정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 7월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3개 구는 이후 교육·문화·예술 분야 등 보다 폭넓은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7월: 3개구 협의회, 중학생 스포츠 교류 실시에 합의

2016년 7월 동청구청장의 초청으로 중랑구와 메구로구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3구 간 교류사업과 지속적인 우호교류 관계 증진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협의 결과, ▲2017년부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교류 실시, ▲첫 개최지는 동청구, ▲참여대상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등 교류사업 내용을 큰 테두리 내에서 합의하고, 상세내용에 대해서 이후 실무자들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여대상을 남학생으로 한정된 이유는 각국별, 구별 상황에 따라 동아리 활동과 선수층에 차이가 있어 우선은 공동으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2019년 농구친선경기
(사진제공: 중랑구청)

2017년 7월: 제1회 ‘3개구 청소년 농구교류전’ 동청구에서 개최

2017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1회 3개구 청소년 농구교류전이 개최되었다. 이 사업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3개 구 간의 우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최일	상세 일정
7월 25일(화)	- 중랑구·메구로구 대표단, 베이징 도착 - 환영 만찬
7월26일(수)	- 3구 농구대회 개회식 - 제 1 시합(중랑구 대 동청구) - 제 2 시합(동청구 대 메구로구)
7월27일(목)	- 제 3 시합(중랑구 대 메구로구) - 3구 농구대회 폐회식 - 중국 전통문화체험(등근 부채, 가면 채색, 베이징시 제 5 중학교 방문) - 동청구 견학(난튀구상) - 송별 만찬(동청구인민대표대회 주임 주재)
7월28일(금)	- 베이징 시내 참관(고궁 등)
7월29일(토)	- 귀국

메구로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성과로 메구로구 구립중학교 2학년 학생 12명이 농구의 공통된 룰에 따라 3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총괄하고 있다.

개별 학생들의 소감을 살펴보면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한국과 중국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인상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경기 중에 일본 학생이 중국 학생에게 밀려서 넘어졌는데 파울을 한 중국 학생이 일본 학생을 일으켜 세워주는 과정에서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학생의 소감이 있었다.

언어적인 면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경기를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찬에서는 간단한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었다”, “영어와 상대방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8년 7월: 제2회 ‘3개구 청소년 농구교류전’ 메구로구에서 개최

2018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3개구 청소년 농구교류전이 메구로구에서 개최되었다. 전년도와 같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간 농구시합으로 진행되었다. 동청구와 중랑구에서는 여학생 선수단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메구로구 여학생 선발팀 간 시범경기를 진행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좋아하는 농구를 통해 교류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메구로구팀), “언어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도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일본 선수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동청구팀), “환영회에서 (중국과 일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하고 싶다”(중랑구팀) 등 소감을 전했다.

칼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학생들의 소통

한중일 중학생들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국제교류 경험이 적어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 쉽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최측은 게임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에 성공했다.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은 모든 시합이 종료된 후에 실시되었다. 좋아하는 농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3국 학생들로 구성된 6개 혼합팀을 만들어 프리스로 게임을 진행했다. 공을 던지는 팀과 쥘 팀으로 나누어 1분 동안 골인된 횟수를 견주었다. 게임을 통해서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바디랭귀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 거리를 좁혀 이후 팀교류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리스로의 결과는 같은 날 저녁식사 시간에 발표했는데, 일등을 한 팀들이 동점이 되는 발생하여 3국 공통의 가위 바위보로 승부를 가르면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식사 자리배치를 할 때에도 같은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앉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통역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간단한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점차 허물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에 미리 통역 어플을 다운받아 의사소통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2019년 7월: 제3회 ‘3개구 청소년 농구교류전’ 중랑구에서 개최, 중랑구·메구로구 자매결연 체결

제3회 3개구 청소년 농구교류전은 중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중랑구에서 실시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농구 시합뿐만 아니라 중랑구에 위치한 용마폭포공원을 방문하여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를 둘러보고, 클라이밍 체험 등 색다른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에서 짙라인 체험, 웅기테마공원에서 한지공예, 목공예 체험 등 문화체험을 함께 하면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25일에는 3개구 대표단이 모여 차기 교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여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배드민턴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중국 동청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동청구에서 3개구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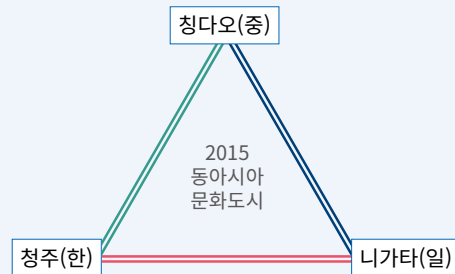
26일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아오키 에이지 메구로구청장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랑구, 동청구, 메구로구 3개 구 자매결연 트라이앵글이 형성되었다.



중랑구-메구로구 자매결연 체결식
(사진제공: 중랑구청)

청주시(한) · 칭다오시(중) · 니가타시(일)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소년·문화 교류 지속



충청북도 청주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靑島市),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新潟市)는 201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도 폐막에 즈음하여, 3개 도시는 공동선언을 채택, 지속적인 우호·교류관계를 촉진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청소년·문화교류 사업을 활발히 운영해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칭다오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참여가 미진했지만, 2019년부터 다시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사업을 운영 중인 청주시와 니가카시는 상대도시를 상호 초청함으로써 행사의 글로벌화,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교류 사업

○ 2016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7월 26~28일	3개 도시 청소년 각 15명
청주시	7월 30일~8월 2일	3개 도시 청소년 각 15명
칭다오시	8월 10~13일	3개 도시 청소년 각 15명

○ 2017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7월 25~28일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15명
청주시	7월 30일~8월 1일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15명

○ 2018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7월 28~31일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15명
청주시	8월 1~4일	청주시·니가타시 청소년 각15명



니가타시 주최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제공: 니가타시)

○ 2019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7월 27~30일	- 칭다오시·니가타시 청소년 참가 - 농업,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니가타시 문화체험
청주시	8월 1~5일	- 3개 도시 청소년 참가 전통악기체험, 문화시설 견학 등을 통한 교류
칭다오시	8월 11~15일	- 전통공예체험, 문화시설 견학 등을 통한 교류

문화교류 사업

○ 2016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8월 4~8일	‘니가타축제’에 청주시 및 칭다오시 전통예술공연단 초청
청주시	11월 9~12일	‘2016 젓가락 페스티벌’에 니가타시 전통타악연주단 초청

○ 2017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8월 4~7일	‘니가타축제’에 청주시 및 제주도(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전통예술공연단 초청
청주시	11월 9~12일	11월 10~19일 개최된 ‘2017 젓가락 페스티벌’에 니가타시 전통타악연주단 초청

○ 2018년

주최	일시	참가자
니가타시	8월 10~13일	‘니가타축제’에 청주시 전통예술공연단, 제주도 케이팝댄스그룹을 초청
청주시	9월 7~10일	9월 9~16일 개최된 ‘2018 젓가락 페스티벌’에 니가타시 전통타악연주단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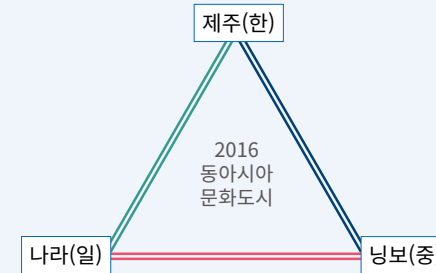
‘니가타축제’에 참가한 청주의 전통예술공연단
(사진제공: 니가타시)

○ 2019년(부분 미정)

주최	일시	내용
니가타시	8월 10~11일	‘니가타축제’ 칭다오시 전통예술공연단 초청
청주시	9월 20~22일(예정)	‘2019 젓가락 페스티벌’에 니가타시, 칭다오시, 광주시·취안저우시(2014 한·중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도(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민속공연단 초청
칭다오시	10월 하순(예정)	칭다오에서 개최될 문화행사에 청주시 및 니가타시 공연단 초청

제주특별자치도(한) · Ningbo시(중) · 나라시(일)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소년 · 문화 교류 지속



제주특별자치도, 중국 저장성 닝보시(寧波市), 일본 나라현 나라시(奈良市)는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다채로운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폐막식에서 3개 지역은 「동아시아 2016 나라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향후 문화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재 3개 지역은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교류 사업에 파트너 도시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나라시의 경우 ▲ 수개월간의 행사준비 과정을 거쳐 참가 학생을 위한 사전학습과 사후보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 전체 프로그램 일정 중 상대 도시가 개최하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점, ▲ 참가 학생이 초청·파견을 통해 양쪽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는 나라시의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각종 행사에 초청·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연도의 동아시아문화도시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닝보시는 제주도, 나라시에서 추진하는 교류행사에 청소년들을 파견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청소년교류·문화 관련 행사에 이들 지역에서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다.

제주도 주최 행사

제주문화외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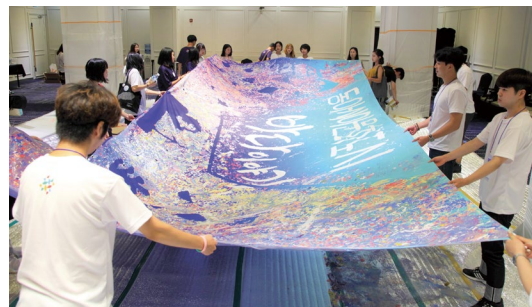
제주도와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가 도내 청소년들의 국제문화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공동개최하는 청소년교류프로그램으로 제주문화강연, 해외파견 문화체험, 문화캠프, 평가워크숍 등 여러 활동들을 통해 제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19년 사례(일부 예정)

프로그램	개최시기
1 오리엔테이션 및 제주문화배우기	3월 말
제주포럼 문화세션 청강	5월 말
국제문화워크 참가	10월 중
2 한중일 국제문화교류(해외 문화교류 1회 파견)	
- 닝보국제대학생축제 참가	6월
- 닝보 한중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참가	8월
- 한중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in NARA 참가	8월
3 제주도 주최 '제4기 동아시아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 참가(전원)	9월
4 평가 워크숍	12월

동아시아 한중일 청소년 문화캠프

2016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제주도를 비롯한 닝보시, 나라시 및 제주도와 교류관계에 있는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하였다.



무대 현수막을 공동제작 중인 2018년 제3기 문화캠프 참가자들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 2018년 사례

일시	2018년 5월 9~12일(4일간)
참가자	학생, 인솔자 등 약 100 여명
참가 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연도)	한국: 제주(2016), 광주(2014), 청주(2015), 대구(2017) 일본: 오키나와(나라시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다른 행사 참석으로 인해 불참) 중국: 취안저우(2014), 닝보(2016), 다롄, 상하이
내용	한중일 청소년들이 음악·미술·영상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멘토들의 도움 하에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

(2019년에는 9월 20~23일 개최 예정)

탐라문화제 초청(2016년부터 연례개최)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문화행사인 '탐라문화제'는 이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한중일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하고, 현지 초등학교에서 문화교실(공연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교실은 2016년 일본 나라측에서 참가한 공연자들의 제안사항으로, 그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후 제주 문화교실에 참여했던 다른 일본 도시들도 자체 행사에 이와 같은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 2018년 사례

일시	참가도시
2018년 10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연도)	취안저우(2014), 닝보(2016), 교토(2017), 상하이, 하이난

(2019년 탐라문화제는 10월 9~13일 개최 예정)

타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참가

제주는 다른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개최지(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연도)
2017년	광주(2014), 청주(2015), 취안저우(2014), 니가타(2015) 주최행사에 공연단·학생 파견
2018년	청주, 대구(2017), 하얼빈(2018), 요코하마(2014), 니가타 주최행사에 공연단 파견
2019년	광주, 청주, 대구, 취안저우, 시안(2019), 요코하마 주최행사에 공연단 등 파견

닝보시 주최 행사

닝보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청소년교류 행사에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개 지역씩 초청했지만, 2019년에는 한중일 3개 지역이 모두 참가하게 되었다.



2018년 Ningbo국제대학생축제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프로그램	일시	내용
'닝보국제대학생축제'에 대학생 초청	2017년 6월	제주도 참가
	2018년 7월	
	2019년 6월	
2개 지역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나라시 고등학생 초청)	2017년 11월	2019년은 3자 간 프로그램 실시(다음 내용 참조)
	2018년 9월	
제주 · Ningbo · 나라 3개 지역 간 교류	2017년 11월	전통공예교류(공예전문가 전시 · 워크숍)
	2018년 6월	닝보시 상산현 해양어업문화보호축제[3개 지역 및 청주시(2015 문화도시) 참가]
	2019년 8월	닝보시에서 "경상닝보(鏡傷寧波)" 한중일 학생사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Ningbo의 역사 · 문화 관련 지역을 탐방하고 팀별로 촬영한 전시작품을 소개 발표

나라시 주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창조 NARA 클래스

나라시가 제주도 및 Ningbo시와의 협력 하에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류 사업으로 모집된 나라시 청소년들은 먼저 강연 등을 통해 한중일 문화를 학습하는 동시에 나라시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법을 배운다. 이어 한 · 중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나라시의 문화를 체험하고, 상호이해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 후 희망자에 한해 제주도 · Ningbo시를 방문하고 각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된다.



(사진제공: 나라시)

나라시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심화하고 상호이해를 보다 증진할 수 있다. 또한 3개국에서 순환개최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트너 도시에 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한 참여 위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 2019년 사례

(2018년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일부 예정중인 행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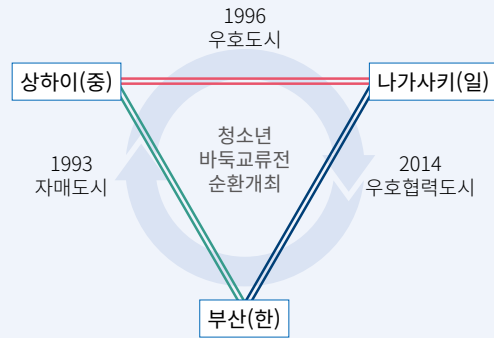
- ① '동아시아 배움의 문'(6~7월 총 3회 강연)
- ② '한중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in NARA'(8월 말 한 · 중 학생들을 나라시에 초청하여 현장학습과 워크숍 등 문화교류 활동 실시)
- ③ '동아시아로의 여행'(닝보시 개최 청소년교류프로그램(8월) 및 제주도 개최 청소년문화캠프에 참가(9월))
- ④ 프로그램 보고회(9월 말)



2018년 나라시 주최 행사
(사진제공: 나라시)

부산광역시(한) · 상하이시(중) · 나가사키현(일)

청소년 바둑교류를 통한 한중일 교류



부산광역시,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3개 지역은 이웃나라로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93년 부산광역시 · 상하이시 자매결연, 1996년 상하이시 · 나가사키현 우호도시 체결, 2014년 부산광역시 · 나가사키현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따라 3자 간 트라이앵글 교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세 도시 · 지역은 과장급 회의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1월 제1회 한중일 3도시 청소년 바둑교류전이 상하이에서, 2019년 제2회는 나가사키현에서 개최되었다.

나가사키현은 이밖에도 다양한 한중일 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파트너 도시인 중국 하얼빈시 및 일본 가나자와시와도 교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제1회 한중일 청소년 바둑교류전 순환 개최

한중일 청소년 바둑교류전은 자매 또는 우호도시인 세 도시 · 지역 간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의 경기력 향상, 글로벌 마인드 및 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둑을 통한 3개 도시 · 지역 간 교류는 이 밖에도 ‘여수(한)-양저우(중)-가라쓰(일)’, ‘전주(한)-쑤저우(중)-가나자와(일)’ 등 여러 사례가 있으나, ‘부산-상하이-나가사키’의 경우 참가자가 초등학생부터 고교생으로 연령대가 낮은 점이 특징이다.

바둑은 한중일 공통의 문화이며, 3국 간 공유가 가능한 바둑 룰 덕분에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교류전 주최측에서 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동의 바둑 룰을 통해 참가자들 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역 없이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최 실적

	개최시기	개최지
제1회	2018년 1월	상하이
제2회	2019년 1월	나가사키

[참고] 2017년~: 나가사키현의 기타 한중일교류 사업

나가사키현은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한중일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한중일 트라이앵글 교류회

나가사키현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 일 · 중 · 일 간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한중일 트라이앵글 교류회’를 일정에 포함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트라이앵글 교류회를 통해 그룹 토론, 강연회, 문화체험 등 활동에 참가한다.

중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에는 나가사키현과 자매 ·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후베이성, 푸젠성, 상하이시 대학생들이 참가한다. 한국측에서는 부산(우호협력도시), 서울(나가사키현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참가지역인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5개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공: 나가사키현청)

개최 실적

제1회	2016년 8월	양자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인 ‘중일 <손문 · 우메야 쇼키치> 세미나’ 및 ‘한일 미래세미나’ 중 하루 일정을 ‘한중일 트라이앵글 교류회’로 지정(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한중일 참가학생 대상)
제2회	2017년 8월	
제3회	2018년 8월	*제 1~3 회 3 차례 개최
제4회	2019년 8월	양자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인 ‘미래로 이어지는 중일 청소년교류 사업’과 ‘한일 미래세미나’ 프로그램 기간 중 나가사키 체류일정 3일을 ‘한중일 트라이앵글 교류회’로 지정. 한중일 학생 교류기간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일본학생 40명, 중국학생 20명, 한국학생 20명 참가). ‘한일 미래세미나’ 중 한일교류 일정은 부산에서 진행

(2) 동아시아 상호교류 촉진 사업

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한중일교류 사업에 대해 건당 45만엔 상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2016년부터 매년 모집을 진행해 2016년과 2018년에는 부산-상하이-나가사키 초등학생 축구친선경기, 2017년에는 ‘2017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를 지원하였다.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는 한중일 아티스트 18명이 약 1개월간 쓰시마에 머무르면서 현지 주민의 협조로 쓰시마를 조사하도록 한다. 참가 아티스트들은 현지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쓰시마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한국 아티스트들의 작품제작과정 및 완성작품
(사진제공: 야마모토 타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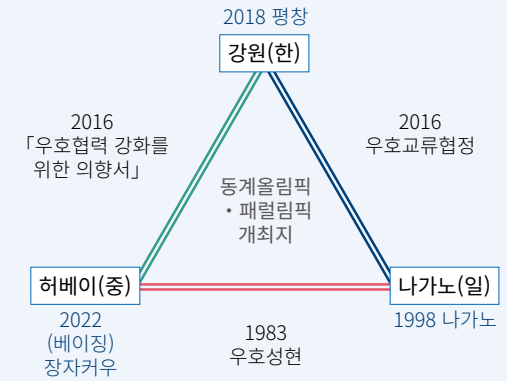
(3) 동아시아 뮤직 페스티벌

한중일 음대생들이 모이는 음악축제로 나가사키대학이 사무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1회	2016년	
제2회	2017년	
제3회	2018년	
제4회	2019년 7월	참여대학: 창원대학교 예술대학(한국), 상하이사범대학음악학원(중국), 갓스이여자대학, 나가사키대학(일본)

강원도(한) · 허베이성(중) · 나가노현(일)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도시 간 교류



강원도,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일본 나가노현(長野縣)은 모두 동계 올림픽 · 패럴림픽 개최지이다. 허베이 성 장자커우(張家口)에서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설상종목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나가노현과 허베이성은 1983년 우호현성을 체결하여 비교적 긴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평창과 허베이성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인 2016년 나가노현과 우호교류협정을, 강원도와 허베이 성과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2017년 · 2018년: ‘한중일 동계올림픽 경제협력포럼’ 개최

이 포럼은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레거시를 활용하고 개최도시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부터 개최되었다. 지방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 주최측인 강원도는 제1회 포럼 시 러시아 측으로부터 대회 경험을 공유받았고, 제2회 포럼부터는 2022년 베이징올림픽을 준비 중인 허베이성에 올림픽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개최 실적

	일시	장소	참가
제1회	2017년 9월	강원도 강릉시	한 · 중 · 일 및 러시아(소치 올림픽 관련)
제2회	2018년 9월	강원도 강릉시	한 · 중 · 일



2018년 포럼 단체 기념사진



2018년 포럼 전경

(사진제공: 강원도청)

대구광역시(한) · 창사시(중) · 교토시(일)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청소년교류 지속



대구시, 중국의 창사시(長沙市), 일본의 교토시(京都市)는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다양한 교류 사업을 전개했다. 2017년 11월 19일 개최된 교토 폐막식에서 세 도시의 시장들은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예술계 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 간 지속적인 문화교류 실시
- ▲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대학, 기업 등 민간 문화교류 활동 기회 창출 및 상호 도시 간 매력 고양
- ▲ 3개 도시의 폭넓은 교류 촉진을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추진, 동아시아 평화적 발전에 공헌



(사진제공: 교토시)

이 선언문에 따라 2018년 이후 실시된 교류사업은 주로 청소년교류(예술계 대학생 상호방문·교류)와 문화교류(상호 문화행사 참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교류가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대학생·청년들 간 교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대구의 “보자기 축제”와 같이 ▲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활동했던 시기(2017년)에 시작된 행사가 이후 정례화되어 3개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 청소년교류 사업과 문화사업을 같은 시기에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점, ▲ 이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되었던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8월: 대구시와 교토시, 청소년교류 사업 실시

대구광역시와 교토시는 「교토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청소년교류 사업을 진행하였다.

교토시 교류 프로그램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구와 교토에서 문화예술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교토의 생활문화·전통산업 현장학습과 그룹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일본 문화의 공통점과 다양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동으로 만화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토시에서는 교토시립예술대학, 교토조형예술대학, 교토미술공예대학, '교토 학생홍보대사' 등 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에서 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사진제공: 교토시)

대구광역시 교류 프로그램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와 교토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간 교류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대구광역시의 문화시설 및 성악쿠르르 본선 견학, 세미나 청강, 2018 대구 보자기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교토시 도시샤여자대학 학예학부 음악학과 학생 8명과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에서 9명의 대구광역시 학생들이 참가했다.

2018년 8월: 대구 '2018 동아시아보자기페스티벌'에 교토시와 창사시 참가

교토시와 창사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2018 동아시아보자기페스티벌'에 2017년에 이어 참가했다. 이 축제는 보자기의 포용성과 다양성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되었던 2017년 처음 개최되었다.

축제기간 동안 한중일 청년 아티스트들의 음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길거리 공연을 볼 수 있는 '청년예술제'가 개최되었다. 또한 교토시에서 온 현대무용가의 공연과 3개 도시 전통악기 연주자들의 '한중일 전통음악 합동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한편, '보자기 작품 체험전'에는 교토시와 창사시에서 온 전통공예 장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이 한중일의 전통공예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보다 앞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한국의 다른 도시들을 위한 홍보관도 개설되었다. 광주광역시(2014년)의 관광명소 VR기기 체험, 청주시(2015년)의 '젓가락 페스티벌'과 연계된 젓가락 만들기 및 교구체험, 제주특별자치도(2016년)의 갈옷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2018년 11월: 교토시 'kokoka (국제교류회관) 오픈데이 2018 및 평화기념사업'에 대구시 참가

교토시에는 약 4만명(인구의 약3%)에 달하는 해외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11월 3일 교토시 국제교류회관(kokoka)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타문화의 즐거움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kokoka 오픈데이 2018 및 교토시 평화기념사업'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과 연계하여 대구시 전통국악단이 참가하는 한중일 3국 예술가 무대공연을 선보였다.

2019년 3월: KYOTO STEAM 한중일 스테이지에 대구시와 창사시 참가

교토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를 지속하고 문화의 힘으로 동아시아의 평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KYOTO STEAM-세계문화교류축제-프로로그" 행사와 이와 연계하여 한중일 3개 도시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스테이지"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교토시의 브레이크댄스와 판타마임 및 마술, 대구광역시의 전통음악, 현대무용 및 뮤지컬 갈라, 그리고 창사시의 클래식 음악 아티스트들이 참가했다.



창사시(좌)와 대구시(우) 예술가들의 공연
(사진제공: 교토시)

2019년 7월~: 청소년교류 및 문화교류 후속사업 2년째 지속

청소년 교류

- 교토시 주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교토시와 대구시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문화체험, 프리젠테이션 등을 진행하였다.
- 대구시 주최: 11월 대구시와 교토시에서 플루트를 전공하는 음대생 각 7명이 문화체험과 같은 시기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보자기축제'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 교류

- 교토시 주최: 11월 'kokoka 오픈 데이'에 열릴 한중일 문화 공연에 대구시가 참가할 예정이다.
- 대구시 주최: 11월에 개최하는 '2019 동아시아보자기페스티벌'에서 교토시의 전통공예부스를 설치하고, 교토시가 한중일 문화공연에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한) · 하얼빈시(중) · 가나자와시(일)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후속사업 개시



부산광역시, 중국의 헤이룽장성 하얼빈시(哈爾濱市), 일본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金沢市)는 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1년간 다채로운 교류 사업을 전개했다. 2019년에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아티스트들을 상호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상하이시, 나가사키현과의 자매·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바둑교류전을 순환 개최하고 있고, 가나자와시는 한국 전주시, 중국 쑤저우시와의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기반으로 도서관·바둑 교류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9년 8월~: 부산·하얼빈·가나자와 문화교류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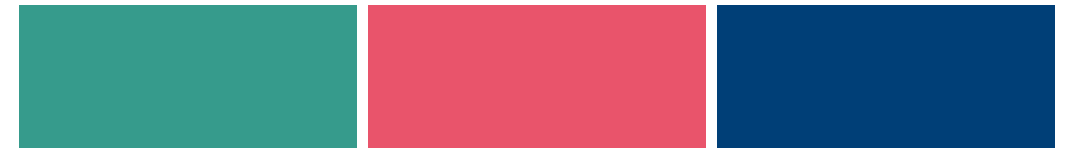
부산시, 하얼빈시, 가나자와시는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후속사업을 201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3개 도시는 2019년 8월 이후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아티스트들을 상호파견하는 등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사업내용

일시	내용
8월 2~3일	하얼빈시에서 주최하는 음악행사에 가나자와 오케스트라 연주단 참가
8월 23~24일	하얼빈시에서 주최하는 음악행사에 부산 관현악단 참가
9월 21~22일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동아시아 문화의 숲’에 가나자와·하얼빈 음악가 참가(한중일 음악가 클래식 협연 등), 가나자와 전통공예부스 등
10월 19~20일	가나자와 주최 행사에 부산 합창단, 하얼빈 전통음악단 참가

제2장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메커니즘 및 행사



동아시아문화도시

3개 도시 간 대규모 문화 교류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한중일 3국 정부가 각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또는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하나씩 선정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3개 도시 간 교류 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상호이해와 연대감 형성을 촉진하고 역내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에서 1985년부터 실시한 ‘유럽문화수도’ 사업을 모델로 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은 각 도시의 문화적 개성을 살리고 문화예술, 크리에이티브 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3개 도시는 문화도시 해당연도가 지난 이후에도 문화교류 및 청소년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다른 연도의 문화도시와도 문화·청소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한중일 도시 간 트라이앵글 교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순조롭게 지속될 경우, 매년 1개씩 새로운 교류 도시 그룹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중일 국민들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로고
(제공: 인천광역시, 시안시, 도쿄도 도시마구)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연도	한국	중국	일본
2014년	광주광역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
2015년	청주시	칭다오시*	니가타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닝보시	나라시
2017년	대구광역시	창사시	교토시*
2018년	부산광역시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2019년	인천광역시*	시안시	도쿄도 도시마구
2020년	순천시	양저우시	기타큐슈시*

(*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3국 지방정부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 올해로 21회째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역사적·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의 자치체국제화협회가 1999년 이후 매년 순환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다.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년 회의는 “동북아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자원을 살린 매력 창조”를 주제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에히메현에서 개최된다.



(제공: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프로그램

-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모범 사례 공유
-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방향 및 지방행정 현안사항 토론
- 한중일 홍보부스 및 ‘교류광장’ 운영
- 개최도시 지방행정 사례 현장시찰

개최실적

연도	회차	개최지	주제
1999년	제1회	한국/서울특별시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의 증진
2000년	제2회	중국/베이징시	새천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 전망
2001년	제3회	일본/도쿄도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새로운 존립방안
2002년	제4회	한국/서울특별시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통한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
2003년	제5회	중국/우시시	지방정부 국제교류와 지역경제활성화
2004년	제6회	일본/니가타현	한·중·일 상호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정책
2005년	제7회	한국/강원도	동북아시아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의 역할
2006년	제8회	중국/하얼빈시	동북아의 우호 촉진과 공동 발전 · 번영 실현
2007년	제9회	일본/나라현	동북아시아의 교류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2008년	제10회	한국/전라남도	지역 활성화에 의한 발전 방안
2009년	제11회	중국/창춘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 공동발전 추진
2010년	제12회	일본/나가사키현	지역 간 협력 추진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
2011년	제13회	한국/전라북도	지역 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2012년	제14회	중국/쿤밍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2013년	제15회	일본/도야마현	지역 특색을 살린 시책과 동북아시아의 상호 발전
2014년	제16회	한국/구미시	인문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일 교류 활성화
2015년	제17회	중국/르자오시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 및 도시 국제화 발전
2016년	제18회	일본/오카야마시	지방정부 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방의 활성화
2017년	제19회	한국/울산광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방안 모색
2018년	제20회	중국/카이펑시	협력상생의 동북아 지역운명공동체 건설

(출처: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홈페이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경제 특화 한중일 지역 협력



2018년 인천 총회
(사진제공: 기타큐슈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는 한중일 연안 11개 도시로 구성된 경제교류 특화 플랫폼이다. 이 기구는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동아시아경제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회원 도시 간 연계, 경제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동 및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한다.

OEAED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중일 지역교류 중 가장 역사가 긴 플랫폼 중의 하나로, 그 시작은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 도시회의’ 및 ‘동아시아 경제인회의’가 발족했다. 이 두 회의는 초기에는 일본의 기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에 있던 중국의 다롄시와 칭다오시, 한국의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6개 도시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한국의 울산광역시, 중국의 톈진시·옌타이시, 일본의 후쿠오카시 4개 도시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2004년 경제교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서 10개 도시 간 OEAED가 설립되었다. 2014년 일본 구마모토시가 가입한 이후 현재의 11개 도시 체제가 되었다.

OEAED 조직은 다음과 같이 총회·집행위원회·부회·제삼자평가 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된다.

○ 총회

회원도시의 행정·경제단체(상공회의소·국제상회) 대표로 구성되는 OEAED의 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도시 간 순환 개최된다.

○ 집행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 개최되는 실무자 회의로 총회를 보좌하고 각종 과제에 대해서 협의한다.

○ 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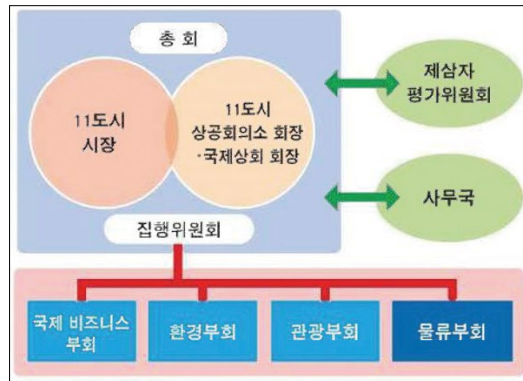
실무사항을 협의해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국제비즈니스부회, 환경부회, 관광 부회, 물류부회를 포함한 4개 부회가 설치되어 있다.

○ 제삼자평가위원회

기구활동·운영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전문적 의견과 객관적 관점에서 조언·평가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중일에서 1명씩 총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 사무국

기구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타큐슈시·시모노세키시 정부와 일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타큐슈시에 설치하였다.



(출처: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홈페이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환황해 지역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황해 연안지역 참여



제17회 회의
(한국 군산시, 제공: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의 ‘황해’를 둘러싼 지역의 경제권(환황해 지역경제권)을 발전·심화하기 위한 교류 플랫폼으로서, 2001년 3월 출범하였다.

이 회의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과 같은 정부기관을 비롯해 관련 지방정부,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무역·투자, 기술,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다.

참여 지역

○ 한국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총 5개 도 4개 시)

○ 중국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총 4개 성 3개 시)

○ 일본

규슈 지역

개최 실적

회차	개최시기	개최지
제1회	2001년 3월	일본/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제2회	2002년 10월	한국/전라북도 전주시
제3회	2003년 9월	중국/산둥성 웨이하이시
제4회	2004년 10월	일본/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제5회	2005년 11월	한국/대전광역시
제6회	2006년 9월	중국/산둥성 르자오시
제7회	2007년 11월	일본/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제8회	2008년 10월	한국/인천광역시
제9회	2009년 7월	중국/산둥성 옌타이시

제10회	2010년 10월	일본/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제11회	2011년 11월	한국/대전광역시
제12회	2013년 11월	중국/장쑤성 련윈강시
제13회	2014년 11월	일본/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제14회	2015년 11월	한국/부산광역시
제15회	2016년 7월	중국/장쑤성 옌청시 주제: 「환경에 배려한 이노베이션과 개방적인 융합」
제16회	2017년 11월	일본/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주제: 「지역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 · 신시장의 창출」
제17회	2018년 11월	한국/전라북도 군산시 주제: 「지역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 · 신시장의 창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지방농업행정을 매개로 한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플랫폼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은 ▲21세기 농업 · 농촌의 미래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내외에 확산하고, ▲3농(농업 · 농촌 · 농민정책) 발전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농업행정을 매개로 한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연례 개최되고 있다.

3농 포럼은 일본 나라현에서 매년 개최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 제5회 회합(2014년) 시 나라현과 우호교류관계에 있던 충청남도가 농업을 주제로 한 포럼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 포럼을 개최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3농포럼은 충청남도 또는 이와 자매결연 · 우호교류관계에 있는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우호협력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한 사례이다.



2018년 포럼 포스터
(제공: 충청남도)

개최 실적

회차	일시	참가자	개최도시
제1회	2015년 9월	약700명	한국 충청남도 예산군 - 주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
제2회	2016년 10월	약300명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 주제: ①식농연계와 건강장수, ②도시와 농촌의 교류, ③농업의 6차 산업화
제3회	2017년 9월	약300명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 주제: 산지농업, 녹색나눔
제4회	2018년 9월	약500명	한국 충청남도 예산군 - 주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
제5회 (예정)	2019년 11월		중국 쓰촨성 청두시



(제공: 충청남도청)

한일중 공무원 3국협력 워크숍

한국 외교부 주최, 한중일 청년 지방공무원 간 교류의 장

‘한일중 공무원 3국협력 워크숍’은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3국 간 지방 차원의 협력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3국 공무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 외교부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이다. 주요 참가자는 국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 지방공무원과 한국에서 근무·연수 중인 중국·일본 공무원이다. 이들 중·일 공무원 중 대부분은 한국 지방정부와 자매·우호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파견된 청년 지방공무원으로, 3국협력 워크숍은 장기간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과 지방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5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중 공무원 3국 협력 워크숍은 한국측 38명, 중국측 35명, 일본측 15명으로 총 88명의 한중일 공무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3국협력의 현황과 TCS”를 주제로 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의 강연을 비롯하여 정상기 전 외교부 동북아협력대사의 “한중일 문화차이” 강연, 한중일 공무원들의 3국 협력 사례 발표, 문화공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9년 워크숍 기념 단체사진
(제공: 한국 외교부)

이 보고서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홈페이지(<https://www.tcs-asia.org/ko/data/publications.php>)에서
한·중·일·영 4개 언어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한중일지방도시 트라이앵글 교류 2019」

2019년 10월 초판 인쇄

2019년 12월 2판 인쇄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03185

T +82-2-733-4700 F +82-2-733-2525 E tcs@tcs-asia.org

편집·취재·자료수집: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회·문화부

집필: 나가후치 켄지(長淵 憲二)

한국어판: 손하예슬, 나가후치 켄지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비매품/무료

93350



9 791188 016266

ISBN 979-11-88016-26-6